

칼빈의 성경영감: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태화(백석대 신학대학원 교수, 조직신학)

1. 들어가며

성경영감과 관련한 논의는 이성의 전능성을 주창하는 계몽주의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과학의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실증주의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근대시대에 접어들면서 성경의 가신성이 진정성을 지닌 것인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를 기치로 내세운 종교개혁교회의 후손들임을 자처하면서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전통을 그 근간에서 계승하려는 자들에게 성경의 권위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논란은 개혁교회 진영도 피해갈 수 없는 일 이었고, 따라서 이에 관한 상당히 다양한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유산(*Legacy*)을 이룬 존 칼빈(*John Calvin*)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일어났다.

칼빈이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 가졌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학계에 두 지류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¹⁾ 한 진영에서는 칼빈이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였으되, 19세기 후반으로부

*) 본 논문은 2015년 5월 12일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주최한 “제7회 칼빈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이다.

터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신학적 관심사였던 소위 무오류설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는 핵심적인 주장을 드러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려가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강조하면서 두 초점을 살리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다른 진영에서는 칼빈이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 할 때, 무오류설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반영했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축자적 영감(verbal inspiration)을 넘어 기계적 영감(mechanical

- 1) 고든콘웰신학교의 교수인 Roger Nicole은 칼빈의 성경무오설을 변호한 그의 논문 “John Calvin and Inerrancy”에서 성경무오까지 변호한 학자들로 L. Bost, C. D. Moore, R. Seeberg, O. Ritschl, P. Lobstein, J. Orr, B. B. Warfield, P. Wernle, A. M. Hunter, H. Bauke, D. J. de Groot, C. Edwards, T. C. Johnson, A. Christie, J. M. Nicole, R. Davies, K. Kantzer, E. Dowey, B. A. Garrish, R. C. Johnson, J. K. Mikelson, A. D. R. Polman, L. Praamsma, J. Murray, P. Hughes, H. J. Forstman, J. I. Packer, J. Gerstner, R. A. Muller, L. J. Mitchell, J. Woodbridge를 언급했고, 축자영감과 성경무오류설을 부정한 학자들로는 H. Heppe, P. Menthonnex, J. Cramer, C. A. Briggs, E. Rabaud, A. Benzsch, J. Pannier, E. Gauteron, J. Chapius, E. Doumergue, J. A. Cramer, H. Clavier, W. Niesel, P. Lehmann, F. Wendel, T. H. L. Parker, H. Noltensmeier, R. S. Wallace, W. Kreck, J. K. S. Reid, J. T. MacNeill, L. de Koster, R. C. Prust, F. L. Battles, R. Stauffer, J. Rogers and, D. MacKim, D. W. Jellema를 꼽았다. In R. C. Gamble(ed.), *Calvin and Hermeneutics*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275.
- 2) 축자적 영감과 기계적 영감 사이의 구별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루이스 벨코프의 조심스러운 진술을 참고할 만하다: “이 두 용어는 분명히 동의어가 아니며 영감 사역의 다른 두 측면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영감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영감의 성격을 가리킨다. 또 기계적인 영감설은 필연적으로 축자적인 것이 사실인 반면, 축자 영감이 반드시 기계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사용된 단어를 선택하는 일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일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신 것은 아니다. 기계적인 영감관에 따르면, 제이차적인 저자들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것으로, 그들은 그저 서기였고, 성령의 말씀이 흘러간 통로일 뿐이었다고 한다.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그들이 정신상태가 정지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기록의 내용이나 형식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과 성경의 스타일까지도 성령의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우리의 벨기에신앙고백서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오늘날 개혁신학이 받아들인 교리도 분명히 아니다. 오늘날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유기적 영감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제이차적 저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것을 받아 적은 시기에 불과했다고 믿지 않았으며, 그들이 기록한 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 자신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것들의 스타일이 단순히 성령의 스타일이라고 믿지도 않았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그들을 진정한 저자로 인정하고,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들의 인격적 공헌을 충분히 정당하게 취급하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상)』,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162-163.

inspiration)과 같은 그런 차원²⁾을 칼빈이 수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사실 칼빈의 성경영감이해와 관련한 쉼이 쌓인 연구 자료를 일별하고 그 안에서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짧은 논문에서는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조금 다른 관점을 사용하여 칼빈의 이해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진영이 양분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칼빈이 이 두 차원의 논의를 자신의 글에 남겨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한 쪽이 왜곡되게 칼빈을 읽고 있다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어떤 면에서 칼빈 자신에게 이런 두 차원이 그 긴장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칼빈의 자료를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판단을 가지고 칼빈을 읽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느 한 쪽을 택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칼빈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면 되지 않을까 싶다.

간략하게나마 성경영감과 관련한 칼빈의 입장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피면서 갖게 된 생각은 연구자들의 칼빈 자료 사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이곳저곳에 특별한 서술적 설명 없이 기록해놓은 몇몇 파편적인 언급들을 수집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칼빈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이 혹시나 칼빈의 본래적인 의도를 지나치는 방해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성경을 읽어가는 어떤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기를 위해서, 또한 그런 목적을 의도적으로 제안하면서 기술한 『기독교 강요』를 통일된 혹은 내적인 일관성을 가진 통합적 진술로 보면서 성경의 영감을 논하게 될 때와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서』를 평면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성경 영감에 대한 그의 입장을 기술할 때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다른 견해에 도달하는 것을 칼빈

의 성경영감론을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논문에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의 성경영감론에 대한 조직적인 진술로 보고, 그 저술의 범주 내에서 칼빈이 영감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이런 자료상의 제한을 그어 놓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그의 사상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칼빈이 주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곳저곳에 남겨놓은 성경 영감에 관한 진술의 진의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된다.

제한된 자료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되, 구신약 성경을 포괄하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형성되어온 성경을 의미하는 “스크립투라”와 그 성경을 관통하면서 성경의 내적인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칼빈이 사용하는 “독트리나”를 비교하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려고 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투라와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 or God's Word)은 사실상 개념차가 존재하지 않는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기³⁾ 때문에,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 사이의 관계를 파고드는데 집중하려고 한다. 아울러 칼빈이 스크립투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무오류성(inerrancy)과 불오성(infallibility)이라는 이해 차와 같은 것에 의식적으로 실제적인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 사이의 개념 차와 용례 차를 살피는 가운데 엿보려고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이 주어진 근접 문맥을 존중하는 가운데 칼빈의 진의가 무엇인지 가늠해보는 일도 성숙한 개혁신학의 신학적

3) Rupert E. Davies, *The Problem of Authority in the Continental Reformers* A Study in Luther, Zwingli, and Calvin (London: Epworth, 1946), 108.

유산을 헤아려 수납하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점에서 성립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2. 역사적인 정황

누군가가 신학을 전개했을 때 그 신학은 거의 확실히 자서전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차원을 배제하고는 누군가의 신학이 제대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살았던 시대와 그 시대가 그에게 부과했던 과제를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과연 칼빈이 자신의 성경관을 전개할 때 직면했던 시대적 상황이 무엇이었을까? 『기독교 강요』에 개진된 내용을 고려할 때, 칼빈이 성경의 권위를 말하게 되는 역사적인 문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반적으로는 용인되어지는 관점을 제임스 팩커(J. I. Packer)가 짜임새 있게 요약하여 언급했듯이, 크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재세례파라는 양대 흐름으로 압축될 수 있으나,⁴⁾ 칼빈이 성경관을 제시하는 문맥과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다음의 세 초점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성경관을 전개하는 칼빈의 관심을 성경과 함께 “전통”을 취함으로써 성경을 능가하는 교회의 권위(*sola ecclesia*)를 공고하게 세우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스크립투라의 자증성(*authenticatio in se*)을 강조하는 것으로 칼빈의 논점을 구체화하게 만들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을 아예 제거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의 사역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재세례파가 칼빈이 성경론을 전개할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주요한 논적이었다. 이에 대한 응전으로서 칼빈은 성령의 내적인 증언

4) J. I. Packer, “Calvin’s View of Scripture,” in *God’s Inerrant Word*, ed., J. W. Monfgomery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3), 98.

(*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을 매우 본질적인 것으로 삼되, 그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 외적인 그릇인 스크립투라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논점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셋째로, 스크립투라를 권위의 유일한 책으로 수납하되, 그 성경을 올바른 기독교적 구원의 도리를 근간으로 해석하고 파악해야 하는 지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조점을 제안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스크립투라 안에 포함된 독트리나에 대한 이해로 구체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언하여, 오직 교회(*sola ecclesia*)의 원리에 근거하여 전통을 옹호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하여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에 근거하되, 그와 같은 원리에 착근하여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여 기독교가 선포해야 할 확고하고 본질적이어서 시대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붙잡아 선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논점을 확보하는 일이 칼빈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단순하게 스크립투라의 권위만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것을 종교개혁적인 새로움, 곧 구원론적인 전망으로 개진해야만 했던 것이다. 언급한 이 세 차원을 배제하고는 칼빈의 성경관의 진면목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신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이 세 가지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의 이해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스크립투라

3.1. 스크립투라의 권위

3.1.1. 객관적인 성격

칼빈에게서 스크립투라는 인간의 마음에서 형성된 왜곡된 신지식

에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왜곡된 지성의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하나님”을 “특징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에 사용되는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⁵⁾ 환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인간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참된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련하신 “특별한 선물”(special gift)이 바로 스크립투라라고 칼빈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⁶⁾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형성한 스크립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신 “당신 자신의 말씀”(his Word)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갖는 스크립투라 안에는 두 구별된 종류의 신 지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첫 번째 종류의 신 지식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고, 두 번째 종류의 신 지식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소용되는 증보자의 인격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곧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지시한다.⁸⁾ 이 두 가지 지식⁹⁾을 내포한 스크립투라에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의 창조주요 죄인의 구속주가 누구인지 혹은 그에 관해서 인간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진술해놓았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특별히 전자와 관련하여,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다른 공교하게 꾸며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스크립투라를 제공했다고 칼빈은 강조하

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연도미상), I, 6, 1.

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9) 창조주 신 지식에 관하여(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도 동일한 논조를 따라서 언급한다(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16, 5-12.).

는데, 무엇보다도 이 문맥에서 자연계시의 불충분성과 비교하면서 매우 강하게 스크립투라의 독특한 가치를 드러낸다.¹⁰⁾ 환언하여, 스크립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중요한 장(場)으로서¹¹⁾ 기능한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사실 자연계시의 불충분성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연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다는 사실, 혹은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영하는 “영광스러운 극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시보다 우선적으로 스크립투라에 호소하는 이유는 인간 마음의 깊은 부패성을 칼빈이 보고 깊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너무나 뚜렷하게 그 마음이 부패한 존재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새롭고 인위적인 우상종교를 만들려는 대담한 욕망을 광범위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기록된 증거로서 말씀의 도움(the assistance of the Word)을 생각하게 된 것임을 밝힌다.¹³⁾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증거로서 말씀”은 스크립투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맥상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참되고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묘사한 기록된 스크립투라를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립투라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칼빈은 하나님과 스크립투라와의 관계 문제에 집중한다. 칼빈에 따르면 스크립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배정한 “유일한” 자리이며,¹⁵⁾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신적인

1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2.

1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2.

1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2.

1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3.

1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3.

1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7, 1.

업위의 능력이 살아 있고 숨을 불어넣는” 그런 성격의 책이다.¹⁶⁾ 또한 칼빈은 스크립투라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동감 있게 들려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 천명하면서, 바로 이런 성격의 스크립투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¹⁷⁾ 칼빈에 따르면, 이런 점에서 스크립투라는 자기 자신의 진리됨을 분명한 증거와 함께 완전히 보여주는데, 이것이 소위 스크립투라의 자증성을 구성한다.¹⁸⁾ 그러니까 칼빈에게서 스크립투라의 자증성은 그 자체로 스크립투라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기초한다는 사실에서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경형성사에서 스크립투라의 자증성이 정경성 여부를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3.1.2. 주관적인 성격

이런 칼빈의 논지는 스크립투라를 권위적인 문서 혹은 정경적인 문서로 결정한 것은 교회의 고유한 권위에 따른 결정이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로 직행한다.¹⁹⁾ 물론 칼빈은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곧 그들의 선포 위에 선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의 권위에 선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선포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정확히 논박한다.²⁰⁾ 이와 함께 과연 스크립투라가 교회의 결정에 따른 권위에 의존하여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이 물음과 논지는 칼빈에게서 다시 성령론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또 다른 핵심적인 논지를 구성하게 된다. 칼빈은 스크립투라가 인간 스스로나 혹

1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1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1.

1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2.

1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1.

2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2.

은 교회와 같은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증거(the inner testimony of the Holy Spirit)를 통하여 입증되는 것임을 매우 분명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 스크립투라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from the very mouth of God) 흘러나온 것임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¹⁾ 환언하여, 성령의 내적인 증거의 사역은 어떤 인간의 추측도 미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스크립투라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증언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칼빈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실상을 깊이 인식하며 그 특징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바, “미신의 노예상태에 자신의 마음을 묶어 매는 습관”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묘사하며,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스크립투라의 진정한 가치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한다.²²⁾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적인 업무의 능력이 스크립투라(there)에 살아 숨 쉬는 것”을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²³⁾ 칼빈에 따르면,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인을 치시기”²⁴⁾ 때문이다.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일을 통하여 “겸양지덕을 구비하여” 스크립투라의 “교훈을 배우려는 자”가 된다고 말한다.²⁵⁾ 정리하여 말하자면, 칼빈의 사고구조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단 하나의 참된 믿음에 이른 자들은 스크립투라의 교훈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로 변하게 되고, 이들에게 스크립투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인데,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스크립투라의 독자들의 내면

2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2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2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2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2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투라 그 자체의 성격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칼빈이 드러낸다는 사실도 간과 하면 곤란할 것이다. 바로 이런 차원 때문에, 스크립투라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문장과 문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되어 소개된 신적인 경륜”으로 인식된다든가, “어떤 이 세상적인 집착을 벗어난 그 교리의 완전하고 천상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든가, “모든 부분들이 서로 아름답게 호응함”으로써 그 고유한 위엄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여, 성령이 스크립투라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스크립투라의 위엄은 언어의 매력보다는 주제의 장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²⁶⁾ “거룩한 스크립투라와 관련하여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흠집을 내고 부식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상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스크립투라가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때문임을 칼빈은 바울의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고전 2:4-5)에 근거하여 다시 한 번 역설한다. 이런 측면들로 인하여, “거룩한 스크립투라에는 인간적인 열정에 수반되는 재주나 품위를 훨씬 능가하는 어떤 신적인 것이 숨 쉬고 있다”고 칼빈이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라는 칼빈의 강조점은 스크립투라 그 자체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본질적으로 의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내재하는 두 전선을 향한 부대적 효과도 고려한 것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여, 성령을 성경으로부터 분리시켜 교회의 영으로 환원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교회 권위를 향하여 제기하는 신학적인 논박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믿음이 발생하며, 그렇게 발생된 믿음은 외적인 계시의 수단 없

2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1.

2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2.

2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1.

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하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세례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을, 재세례파를 향하여는 스크립투라라는 객관적인 계시와 함께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제안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스크립투라의 객관적인 권위를 세우는 일에 칼빈이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2. 영감과 스크립투라

이렇듯, 칼빈에게서 스크립투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신적인 권위로 옷 입혀진 특별한 책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과연 신적 권위로 옷 입혀진 스크립투라가 그 자체로 무오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이고, 이것은 아직도 더 깊은 토론에 열려 있다고 말해야 한다. 스크립투라가 성령의 내적인 증거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인간이 인식하고 또한 확신하게 된다고 강조하여 설명하는 바로 이 문맥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스크립투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면서도 또한 인간의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칼빈도 스크립투라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는 바로 그 문맥에서, 또한 그것은 사람들의 봉사(by the ministry of men)에서 구성된 것임을 지나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속임이나 모호함이 없이 말씀하셨음”(사 43:10)을 칼빈이 강조하고는 있지만³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말씀행위”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

2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3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7,5.

리 말하여 이것이 기록된 문서로서 스크립투라가 속임이 없고 순전하며 무오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상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거룩한 스크립투라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상들로 채워진 신적인 성격을 가진 것”³¹⁾임을 설명하는 과정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잘못된 언어형태들의 씨앗을 뿌려놓는지를 비판하면서 칼빈이 성경의 권위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스크립투라의 무오류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는다. 동시대를 살았으나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던 예레미아와 에스겔의 예언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치 각각 상대방의 말을 받아쓴 것 같다”(as if each had dictated the other’s words)³²⁾는 표현을 칼빈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주어진 예언이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양자 사이의 언어적 엄밀한 일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칼빈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스크립투라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들에 대하여도 진솔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스크립투라를 구성하는 언어가 “거칠고, 세련된 스타일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투박하고 시골풍의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점³³⁾을 칼빈이 인식하지만, 같은 곳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의 세계가 그런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의 의중을 고려할 때, 칼빈이 스크립투라의 언어의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는 언급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허리 굽힘”(accommodatio dei)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순용” 혹은 “적응”이라는 개념이 스크립투라의 영감과 연관될 때,³⁴⁾

3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2.

3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8.

3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인간의 이해 능력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묘사하셨다³⁵⁾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적인 어법으로 자신을 낮추어 계시하셨고, 이것은 마치 어린 아기에게 말을 거는 성인의 모습과 유사한 그런 차원의 언어세계가 스크립투라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적인 숨결이 불어넣어진” 혹은 “신적인 작용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생각할 수 없는 사상들”로 채워진 스크립투라 그 자체의 객관적인 권위를 논증하려는 칼빈의 시도는, 『기독교 강요』를 하나의 체계적인 성경관을 진술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할 때, 기본적으로 바로 이 순응이론을 논점으로 갖고 구성되는 특징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스크립투라는 좋은 내용들만 선정해서 인위적으로 고상한 책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드러내지도, 혹은 일방적으로 거칠고 부패한 현실적인 언어들만을 편향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고집하지도, 혹은 언어의 기교를 최대한 동원하여 수려한 문장과 문체로 구성된 책을 지향하는 태도도 고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 때 그 부는 곳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여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적 차원의 혹은 천상적인 차원의 일관성 있는 내용을 담은, 혹은 통일성을 갖춘 사상을 담은 결과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스크립투라의 바로 그런 특징적인 면을 고려할 때, 모세의 글의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³⁶⁾ 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기적들,³⁷⁾ 그가 말했던 예언들이³⁸⁾ 오히려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논증을 전개하였다.

34) Edward H. Pruden, *Calvin's Doctrine of Holy Scripture* (Edinburgh: The University of Edinburgh, 1930, Ph.D. dissertation), 95; Ford L. Battle,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 *Reading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21.

3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17, 13.

3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4.

3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5-6.

3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7.

물론, 이와 같은 논증을 전개하면서 칼빈이 “천적인 영감”(heavenly inspiration), “성령의 신탁”(the orac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명령”(the command of the Holy Spirit),³⁹⁾ “신적 영감”(divine inspiration)⁴⁰⁾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세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또한 모세를 일컬어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타난” 존재였다⁴¹⁾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모세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립투라의 원저자인 성령과 인간저자인 모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언급해온 그 관점으로부터 크게 차별화된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다. 신약의 저자들인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과 관련하여 성령이 내려와 머문 사람들로 언급하면서,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교훈을 받아 천상의 신비를 영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문맥에서 이런 이유로 “그들의 글에 천상의 엄위(the very heavenly majesty)가 머물러 있다”⁴²⁾고 칼빈이 평가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한 것이 어떻게 문서로 전환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는 족장 야곱이 유다지파에게 최고의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는 가운데, 칼빈이 사용한 표현이다. 즉 칼빈이 “족장 야곱의 인격 안에서 예언적인 영이 최고의 지위가 유다에게 돌려지도록 만들었다”(the prophetic spirit, in the person of the patriarch Jacob, caused the primacy to be assigned to the tribe of Judah)⁴³⁾는 해석을 제안하면서 “족장 야곱의 인격 안에서 예언의 영이”(the

3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4.

4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7.

4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4.

4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11.

4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7.

prophetic spirit, in the person of the patriarch Jacob)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한 인간의 인격 내에서 일하는 차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범주의 일이 모세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칼빈은 동일 문맥에서 강조하면서 “신적인 영감”(divine inspiration), “신적인 계시를 불어넣음”(breath the divine revelation), “말씀하시는 하나님”(God who speak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⁴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포로 70년의 기간을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된 내용(렘 25:11-12)에 기초해서 “그의 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아래 있었다”(must not his tongue have been under the guidance of the Spirit of God)는 표현⁴⁵⁾까지 칼빈은 사용한다. 또한 앞서 활동하시는(as precursor)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말씀들을 “받아쓰게”(dictating)⁴⁶⁾ 하신다는 표현을 칼빈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전체로서 스크립투라의 신적 권위를 옹호하려는 문맥을 반영하는 표현 그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다.⁴⁷⁾ 칼빈이 이런 논증을 하는 핵심적 관심사는 스크립투라의 이런 특징들이 그 신적 권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정적으로 스크립투

4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7.

4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8.

4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IV, 8, 8.

47) H. B. Lee,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1992, Th.D. dissertation), 49. 이환봉은 칼빈이 사용하는 “받아쓰기”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윌필드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한다: “This language (dictante) is figurative... what Calvin has in mind is not to insist that the mode of inspiration was dictation, but that the result of inspiration is as if it were by dictation, viz., the production of a pure word of God free from all human admixtures. The term ‘dictation’ was no doubt in current use at the time to express rather the effects than the mode of inspiration.” In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63-64. 칼빈에게서 영감과 관련된 “dictare”의 서너 가지 용례를 확인하려면, W.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163. 각주 205를 참고하라.

라의 무오류성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 싶다. 왜냐하면, 이런 언급을 하는 바로 그 문맥에서 칼빈은 신적 영감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모세 자신은 어떤 형태의 “애매함”(obscurity)⁴⁸⁾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크립투라는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신적 계시 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음을 칼빈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족장 야곱의 예언과 관련해서는 400년,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모세의 예언과 관련해서는 2000여년의 간격에 걸쳐서 스크립투라의 예언은 애매함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환언하여, 야곱이나 모세가 살았던 그 역사적 상황(in loco), 그가 살았던 시간(in tempo)에서는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태의 시작과 성취를 다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칼빈이 강조하지만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그러니까 “누구도(어떤 선지자도) 시대의 애매함에 (by the obscurity of the time)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분명한 분별력을 소유하지 않았다”⁴⁹⁾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 그다지 놀랍지는 않은 것이다. 칼빈이 생각하는 스크립투라는 신적인 영감이 일어난 거룩한 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언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반영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엘레마(Dirk W. Jellema)가 언급했듯이, 스크립투라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⁵⁰⁾ 어쩌면 칼빈이 언급하는 애매함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그 분명한 모습을 획득하여 가는 신적 행위의 과정에서 비롯

4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8, 7.

4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11, 6. 괄호안의 표현은 논자의 것임

50) Dirk W. Jellema, “God’s ‘Baby Talk’: Calvin and the Errors in the Bible,” *Reformed Journal* 30 (1980), 25.

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고, 스크립투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시기를 지나면서 특정 시대에 연루된 어떤 시대적 한계를 가진 책임을 칼빈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 자신이 시도했듯이, 다양한 노력을 동원해서 그 가신성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책으로서 스크립투라의 확실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칼빈의 의도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크립투라는 그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인 설득에 근거될 때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것이다.”(Therefore Scripture will ultimately suffice for a saving knowledge of God only when its certainty is founded upon the inward persuasion of the Holy Spirit.)⁵¹⁾ 왜냐하면, “성령은 스크립투라의 저자이며”, “스크립투라에 계시한 자신의 모습을 바꾸거나 다른 모양으로 전환할 수 없는 분으로서 자신을 그곳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⁵²⁾ “성령은 사도들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신 분이요,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분이기에”, “말씀 그 자체로서는 자명하지 않고,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 동반되어야만 말씀의 확실성이 세워진다”는 것이 칼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이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스크립투라의 자증성보다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점을 구성한다.⁵⁴⁾ 그러나 더 포괄적인 면에서 칼빈의 사상을 파악한다면, 스크립투라와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⁵⁵⁾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독자에게 미치는 사역이면서 동시에 스크립

5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8.13.

5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9.2.

5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9.3.

54)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4), 108.

5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8.13.

투라 그 자체와 깊숙하게 연결된 사역이기 때문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성령의 내적인 증언을 통하여 스크립투라의 시대적 애매함이 극복되고 전체 성경의 의미구조 안으로 통합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스크립투라는 유일한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4. 독트리나

칼빈이 스크립투라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트리나라는 단어이다.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가 같은 실재를 나타내는 동의어인지,⁵⁶⁾ 아니면 구별해서 읽을 수 있는 단어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기독교 강요』를 편안하게 그 흐름을 따라 읽어볼 때,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칼빈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구두(oracles)나 환상이나, 혹은 인간들의 일과 봉사에 의해서 알리셨든지 간에 그는 족장들의 마음에 그들이 전수해야 할 것을 제공하셨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확고하고 확실한 독트리나가 그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고, 이로써 그들이 배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⁵⁷⁾

56) 칼빈에게서 스크립투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하나님의 말씀”과 “독트리나”가 표면적으로 볼 때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8.9.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the words of God)은 정확히 기록된 책으로서 스크립투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칼빈이 말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를테면 설교와 같은 그런 범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5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2.

이 문맥에서 독트리나는 스크립투라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환언하여, 스크립투라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독트리나의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트리나는 칼빈에게서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일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적어도 인용에서 살핀 바와 그 문맥의 바로 뒤에 나오는 진술을 고려할 때, 독트리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주관에 “확고하고 영원한 믿음”을 일으키는 어떤 실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칼빈의 생각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빈은 기록된 스크립투라와는 구별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의도하며 독트리나를 “하나님께서 (스크립투라로서) 율법 안에 포함시켰다”⁵⁸⁾고 말하는 바로 그 문맥에서 “독트리나는 회중들에게 가르쳐져야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보다는 조금 더 근접한 독트리나의 정의의 한 흔적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이후의 모든 사역자들이 한목소리로 선포했던 것이 “천상의 독트리나”(heavenly doctrine)라고 언급하는 문맥이나,⁵⁹⁾ 혹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나머지 족장들이 불신자들과는 구별되게” “그들이 영생의 소망으로 조명되도록 만들었던 신앙에 필수적인 바로 그 독트리나(the proper doctrine of faith)”⁶⁰⁾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계속되는 칼빈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근거된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과 연관된 가르침, 그것을 독트리나라고 언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¹⁾ 보다 더 분명하게 언급하자면, 신약의 많은 증언으로부터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를 포함한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5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8, 6.

5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13, 7.

6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6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I am not yet going to discuss that covenant by which God adopted to himself the sons of Abraham, or that part of doctrine which has always separated believers from unbelieving fork.”

적 존재를 향한 지속적이고 명확한 증언을 접하게 되는데,⁶²⁾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체계를 독트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핵심적인 주장이다.⁶³⁾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감과 더불어 역사적인 애매함을 내포하고 있는 스크립투라 안에는 영원하고 확실하여 변치 않는 본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트리나라는 칼빈의 이해는, 스크립투라의 시공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차원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스크립투라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는 차원을 독트리나가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환언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의 과정과 더불어 형성되어 온 스크립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트리나를 보존함으로써 어느 시대에나 항상 인간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을 구체적으로 노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⁶⁴⁾는 것이 칼빈이 견지하는 중요한 사상이다. 물론 독트리나는 비록 기독교론적인 성취를 내다보면서 역사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든지 혹은 이미 도래한 기독교론적인 토대를 회고하는 방식이든지 간에 “기독교론적인 중심성”을 명확하게 견지한다고 보아야 한다.⁶⁵⁾ 바로 독트리나의 핵을 구성하는 이 기독교론적인 바탕 위에서 “인간을 영생에의 소망으로 조명하는 일”⁶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독트리나는 인간의 마음에서 확고하게 형성되는 확신을 낳게 되는데,⁶⁷⁾ 그런 의미

62) 물론 이것은 창조를 구속으로 환원시키는 바르트적인 그리스도중심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 지식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혹은 출발점으로 삼아 창조를 포괄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차원을 내포한 것으로 읽는 것이 보다 칼빈적이기 때문이다.

6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6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6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6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1.

6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6, 2.

에서 이것은 “구원의 독트리나”(the doctrine of salvation)와 깊이 연결된다는 것⁶⁸⁾이 칼빈의 핵심적인 이해를 구성한다.

독트리나는 이 확신을 갖는 주체로서 인간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물론 주체로서의 인간의 구원의 확신은 칼빈의 사고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재세례파와는 달리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로 개방시키고 시대적인 제약을 넘어 그 심중에 확고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역은 스크립투라로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기록한 스크립투라를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칼빈의 분명한 확신이다.⁶⁹⁾ 물론 이 확신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인 스크립투라로부터 “천상의 신비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시기 때문임을 칼빈은 배제하지 않는다.⁷⁰⁾ “이런 방식으로” 독트리나는 항상 스크립투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스크립투라가 신적 권위와 함께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론적인 바탕 위에서 죄인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신앙 안에서 영생에로의 소망으로 개방되어지도록 하는 구원의 독트리나가 그곳에서만 매 시대마다 분명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는 분리 불가한 상호 관계 안에 존립하는 것이다. 독트리나와 스크립투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이런 핵심적인 차원은 또한 스크립투라를 기반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과 종교개혁교회의 구원론을 차별화하는 매우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칼빈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8,10.

6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6,2.

7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8,11.

5.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의 상호관계성에서 형성되는 성경의 권위

칼빈의 성경영감론은 논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언급했듯이 세 가지 핵심적인 칼빈의 관심사와 깊이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종교개혁교회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스크립투라의 가치가 매우 본질적임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는 스크립투라와 나란히 전통의 권위를 내세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직 교회(sola ecclesia)에 대항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토대 혹은 형식적 토대로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공고히 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칼빈은 성경의 자증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동시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내세우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권위를 상쇄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재세례파와 관련하여 칼빈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항상 스크립투라와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의 구원론적인 사역, 혹은 성령의 계시적인 사역은 항상 기록된 말씀인 스크립투라와 더불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드러냄으로써 당대의 교회를 안전지대로 이끌어가고 싶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최소한 기계적인 영감설을 기반으로 한 성경관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스크립투라의 본래적인 목적으로서 참된 신 지식을 증개하는 그 기능에 충실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크립투라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의 영감 아래서, 혹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인간 저자가 기록한 영감된 소중한 정경인 것은 바로 죄인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죄인을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 안으로 소명하는데 소용되는 소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를 스크립투라에서 분리하여 교회의 성례에로 환원하고, 사제주의적인 사효성(ex opere operato)에

근거한 신인협력적인 구원론을 전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구원론을 스크립투라와 그 안에 보존된 그리스도에 착근한 구원의 도리를 독트리나 개념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비판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칼빈의 의도였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칼빈은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를 구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불가한 둘의 상호 관계성 안에서 스크립투라의 배타적인 신적 권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6. 나가며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의 구별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교회로 하여금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교개혁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라는 핵심적인 논제와 더불어 신앙고백서(*confession*)를 작성하는 시도를 전개하였다.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는 거의 항상 “독트리나”와 그 독트리나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삶”과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 이 세 국면을 정확하게 배정하는 뚜렷한 흔적을 보여준다. 그것이 곧 신앙고백공동체의 고백의 핵을 구성하는 “독트리나”와 언약적 삶을 노정하는 “십계명”과 그리고 영성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과 기도”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국면이 스크립투라를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⁷¹⁾ 그러니까 종교개혁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라는 형식 원리를 천명하면서도 그 형식 원리로서 스크립투라에 있

71) 독트리나 혹은 도그마의 이런 국면이 신약성경과 구약 성경 그 자체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석하게 풀어낸 연구로는 C. J. Wethmar, *Dogma en Verstaanshorison* (Amsterdam: Rodopi, 1977), 25-149를 언급할 수 있고, 독트리나와 성경의 명료성의 관계를 연결하여 실천적인 적용을 언급한 연구로는 H. W. Rossouw, *Klaarheid en Interpretasie. Enkele probleemhistoreise gesigspunte in verband met die keer van die duidelikeheid van die Heilige Skrif* (Amsterdam: Rodopi, 1963), 154-166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실제적인 관심사, 곧 창조와 구속의 주님과 의 언약관계를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핵심적 관심사인 독트리나를 실제적으로 꼬집어내어 그것에 기초한 신앙의 삶을 포괄적으로, 환언하여, 스크립투라에 기초하여 구체화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스크립투라는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규범으로 혹은 유일한 규범으로 기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성경 전부(*tota scriptura*)로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칼빈이 스크립투라의 권위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혹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혹은 성령이 그 혀를 사로잡아서, 혹은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등등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스크립투라를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실제화하기 위한 관심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이 무오류설이라든지 혹은 불오설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심하면서 성경관을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혹여 칼빈에게 이러한 관심사가 직접적으로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스크립투라의 신적 권위를 의심하거나 혹은 폄훼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에게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성경 전부(*tota scriptura*)를 의미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칼빈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스크립투라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서 선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목양할 수 있다면, 비록 칼빈과 다른 시대 다른 정황에 살고 있을지라도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